

# 강화지역 돼지콜레라 발생사례

양돈전문수의사 김준영

지난 10월 7일 강화지역 한농장에서 호흡기질환 의심돼지를 부검 및 진료하던 수의사가 환돈의 상태를 의사돼지콜레라로 판단하여 관계기관에 신고하였다. 이에따라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서부지소의 1차 진단, 수의과학검역원의 2차 정밀진단으로 돼지콜레라 양성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양돈농가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지난 4월 강원도 철원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지 6개월여만으로 양돈사양가분들과 가축방역당국 등 양돈산업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또다른 충격을 주게 되었다.

많은 양돈사양농가들이 앞으로 추가발생이 있을지에 대하여 필자에게 문의가 있었고 공교롭게도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2차, 3차 발생사실이 발표되었다.

필자는 과거 1999년 2월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소재 모농장에서 돼지콜레라 임상증상을 보았던 경험에 비추어 이번 강화지역의 돼지콜레라 발생과 관련된 임상증상 등이 궁금하여 여러경로를 통하여 강화지역 발생농장을 방문하여 부검을 실시하였던 수의사분을 만날 수 있었다.

다음은 이 수의사분과의 대화를 통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양돈업계에 종사하시는 수의사분들과 양축농가분들께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돼지콜레라 임상증상 도표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급성, 만성 증상과 강화지역 청취증상과 필자가 직접 확인했던 1999년 2월의 경기도 용인 백암 지역 발생시 임상증상을 표시하였습니다.

10월 6일 (일요일)

Y 수의사 앞으로 농장방문 요청 전화가 음. 축주와 통화내용상으로는 비육돈에서 폐렴 또는 편충(기생충의 일종)증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 10. 7.(월요일) 방문시간을 잡고 전화통화 마무리함.



### 10월 7일 (월요일) 농장방문

모돈 130여두, 총 1,300두 사육규모의 농장으로 환돈은 비육사의 한 돈방에서 (비육사: 톱밥 돈사로 2열로 총 20여개 돈방에 1돈방당 30여두 사육, 총 600여두) 약 70kg 전후의 돼지 수용된 돈방에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돼지를 살펴보니 (육안소견상으로는) 침울하고 움크리고 있으며, 발열상태에 있음을 알수 있었고 설사증상의 돼지와 변비증상이 돼지가 혼재되어 있고 돼지 귀 일부에서 청색증이 보였다. 환돈 4두를 부검하였으나 첫 번째 1두에서는 경증의 폐렴 증상 외에는 특이한 병변이 보이지 않았고 2번째 부검돈에서 돼지콜레라로 의심되는 병변 증상이 보였다. 위 내용물이 전혀없었으며 위점막에 출혈소견이 나타나 있었고 신장과 방광 점막에도 출혈 소견이 있었고 비장경색이 나타나 있었다. 폐장기에는 유행성폐렴 소견이 있기는 하였지만 경증으로 큰 영향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음. 소장, 대장부위는 특이한 증상이 보이지 않았음.

위의 부검상황에 따라 돼지콜레라가 의심스러웠고 축주와 다양한 의견을 나누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3번째와 4번째 돼지의 부검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도 2번째 부검한 것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어 관계기관에 신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축주의 여러 가지 우려의 내용도 있었지만 주변농가의 전파 가능성, 최근 돼지콜레라 항체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에 알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함.

### 10월 7일

오후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서부지소 연락, 저녁때 서부지소에서 해당 농장방문 가검물 채취


### 10월 8일

오전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서부지소 1차 진단 결과 돼지콜레라 양성판정 오후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에서 2차 정밀진단 결과 진성돼지콜레라로 판정

### 10월 9일

해당농장내 전두수 살처분 매물 이때까지 밝혀진 역학관련 조사사항으로는 이 농장의 비육돈이 10.4일(금) 경기도 김포 소재의 모 도축장으로 출하되었다는 것 (돼지콜레라로 진단된 돈군과 같은 돈사에서 사육되던 비육돈임) 과 7일과 8일에 돼지콜레라 의심돈 진단소식을 들은 일부 강화지역의 다른 양돈농가들이 다수 출하를 하였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9일에는 강화읍지역 강화 양돈협회에서 강화지역 양돈농가 농장주들이 모여 대책회의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필자 의견 :

1. 돼지콜레라가 통상적으로 잠복기간이 5~7일로 볼 때 지난 10.4일(금요일)에 출하된 비육돈은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
2. 10. 4일 출하 차량 및 출하기사 또한 HC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확률이 높다.
3. 10. 1일 이후 해당농장 농장주 및 농장방문자 방문차량 등이 HC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
4. 수의사가 환돈을 부검시 1두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 돼지콜레라 임상증상 비교표

비교 항목	급성	만성	강화 ( '02.10.7 신고)	경기용인백암 ( '99.2.24 신고)	
잠복기간	5~7일		?	HC 백신접종시기 일부 누락	
병원성	매우 높음	높음	높음	중간	
주발병돈군	노출된 전돈군	좌동	비육돈 ( 70kg 전후)	육성돈 (40~70kg)	
잠복기간	침울, 위축	○	○	○	○
	발열	○	○	○	○
	식욕부진	○	○	○	○
	결막염	○	○/-	?	○/-
	변비	○	○/-	○	○/-
	설사	○	○/-	○	○/-
	경련	○	○	?	○
	청색증	○	○	○	○
	피부출혈	○	○/-	-	○/-
잠복기간	신경증상	○/-	○/-	-	○/-
	신장출혈소견	○	○	○	○
	방광출혈소견	○	○	○	○
	위집막출혈	○	○/-	○	○/-
	맹, 결장 궤양	○/-	○/-	-	-
	비장경색	○	○	○	○
립프절 발적	○	○/-	○/-	○	